

양양소식

2024. 1

Vol. 344

CONTENTS

04 기획특집

웨이브웍스 양양

08 함께 가는 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12 Story in 양양

겨울 별미, 도루묵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다시 새해의 출발신에 섰습니다.
2024년 갑신년(甲辰年) 새해는
동방을 수호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설악의 주전골에서 비리본 용소폭포에서는
미처 승천하지 못한 청룡이 금세라도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대청을 향해 솟아오르는 청룡과도 같은 기세로
갑진년(甲辰年)의 힘찬 새해 벽두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착공'이라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험난했던 41년 세월, 가시밭길 노정(路程)의 끝에서 마주한
오색의 하부정류장은 눈부신 종착지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혁신을 주문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두문 구름 뒤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위기의 순간마다 '운외창천(雲外蒼天)'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응원과 지지,
참여와 관심을 보여 주신 군민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그려했듯 올해도 우리의 앞길에는
꽃길만이 펼쳐지진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는 길목마다 고난의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 없이 거쳐 오는 봄이 없듯
시린 바람 끝에 파란 봄의 끼앗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를 향한 염원으로 보이었던
양암군민 특유의 지력과 뚝심, 위대한 군민 정신을 발휘하면
새해도 분명히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미래를 예측하고 위기에
대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초윤장산(礲潤張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미리 작은 징조와 사소한 징후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초윤장산(礲潤張傘)의 자세로
올 한해, 탄탄대로의 순탄한 길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길로,
도시 교통망 인프라 구축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은 도시개발을 촉진합니다.



양양군수 김진하

종합여객터미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고, 시내와 종합운동장을 잇는
육교 설치사업과 읍·면 도로개설 사업을 통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양양역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0억 원은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율리 낙산 지역을 비롯한 하조대, 인구 등 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른 시급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스마트 농산어촌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으로 우리 지역이 지닌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먹거리의 신순환구조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촌협약 사업은
양양읍 문화·교육 커뮤니센터 신축,
현북·현남지역 행정복지지원센터 신축 등
총 12개 분야의 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임대사업과
지역특화 스마트팜 사업이 공모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전략사업으로 신품종 딸기 클러스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 150억을
포함한 총 269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지역경제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길목인 남대천 기슭에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
현북면 중광정리에는 국내 최초 연어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먹거리 확충과 인구 유입은 물론,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인구는 2021년 13년 만에 2만 8천 선을
회복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지수 또한 여전히 위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주택 건립 등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체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산불, 폭설, 폭우, 대형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방재역량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양지구·낙산지구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한편,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의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춧돌이 짓어 있으면 미리 우산을 펼치듯이
신체적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미지막으로,
양양만이 지닌 특별한 색채감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정주권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의 확대와
하반기부터 서울학사에 입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학생들의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양양을 평생학습의 모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블링장 신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서핑 페스티벌, 웨이어션센터, 고고양양 앱 등
스마트 한 관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공'이라는 뜻을 박기 위해서는
'끈질김'이라는 맘치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처럼 양양군민의 끈질김과 꾸준함은
성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개이불기기 그려했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그려했습니다.

모든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양양에 대한 사랑 덕분입니다.

명품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해에도 '명품도시 양양'에 감동의 스토리를
담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둔 뜻을 마침내 이루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만 8천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벽두에
양양군수 김진하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는 나만의 오피스 웨이브웍스 양양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 그 '휴가'를,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꿈같은 얘기 같지만, 그 꿈이 양양에서 펼쳐지고 있다. 워케이션 센터 '웨이브웍스(WaveWorks) 양양'이 죽도 해변에 문을 열었다. 바닷가로 출근해 일하고 퇴근과 동시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꿈의 공간, 웨이브웍스 양양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바닷가에서 일과 휴식을 한 번에

죽도해변 바로 앞에 자리잡은 웨이브웍스 양양(이하 웨이브웍스)은 얼핏 보기에도 전면 통유리창에 바다 전망이 시원한 카페처럼 보인다. 안을 들여다보면 카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 12월 웨이브웍스를 방문했을 때, 2~30대 직장인 10여 명이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 진지한 모습만 보면 여느 회사 사무실 같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며 일에 집중하다가 한 번씩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죽도해변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에게나 로망인 꿈의 일터다.

지난해 문을 연 웨이브웍스는 휴가지에서도 일상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양양군에서 조성한 업무공간이다.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인 MZ세대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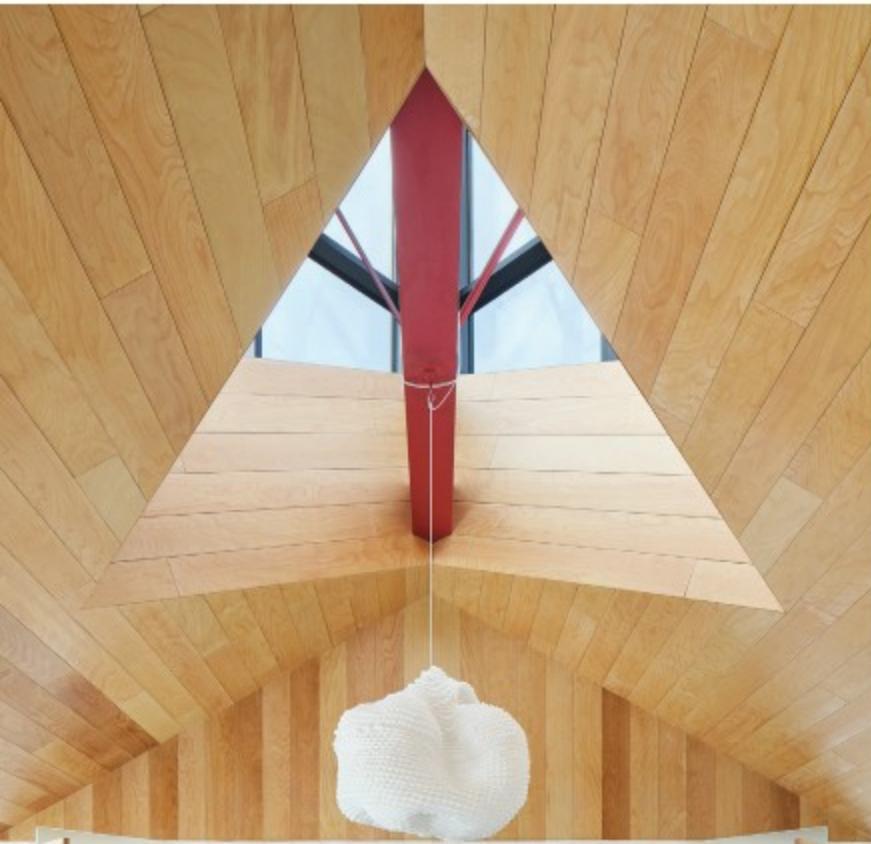


사진 : 김동규 제공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공간

양양군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웨이브웍스는 여느 워케이션 센터와는 조금 다르다.

타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는 유휴공간을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웨이브웍스는 업무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한 건축물이다. 디자인부터 가구, 조명까지 섭세하게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인다.

죽도해변이 시원하게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돼 있어, 일에 지친 순간 언제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북 라운지 위에 천장은 층고가 높게, 또 입체적인 유리창으로 돼 있어 환한 자연광이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다.

웨이브웍스는 32석 규모의 개인 테이블 좌석, 16석 규모의 벤치 좌석, 화상회의 장비가 구비 된 8인실 회의실 2개로 구성돼 있다.

8인실 회의실을 연결해 16인 규모의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단체 워크숍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모임을 위한 대관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와이파이, 좌석별 콘센트, 프린터, 북 라운지, 야외 데크, 음료 코너 등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WaveWorks(웨이브웍스) 양양

예 약 : 고고양양 앱 > 메뉴(우측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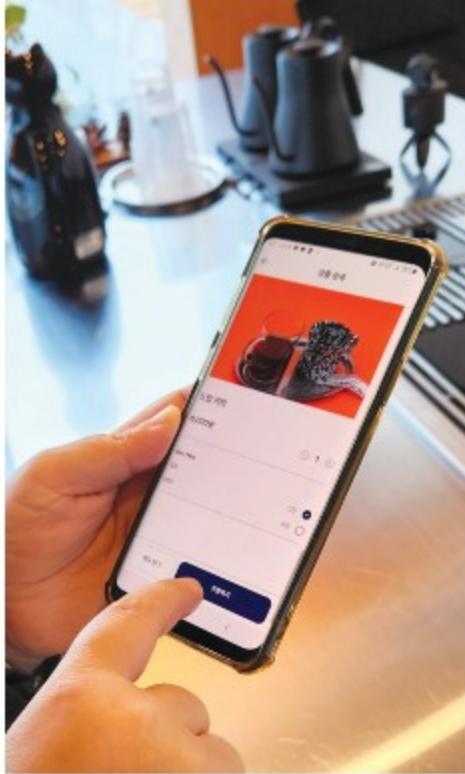
> 양양 Special > 워케이션

주 소 :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10

운영시간 : 매주 월~토 10:00~18:00

휴 무 : 일요일, 공휴일 (☎673-3383)





예약과 결제는 고고양양 앱에서 간편하게

노트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좌석과 회의실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고고양양 앱에서 예약, 결제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창가 맨 앞줄에 배치된 벤치 좌석은 앱에서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예약 시 좌석을 지정할 순 없고 현장에서 빈자리에 자율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음료도 고고양양 앱을 통해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앱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3,000원 할인 쿠폰 혜택도 있다.

가끔 음료를 마시기 위해 들르는 분도 있는데, 웨이브웍스는 음료를 파는 곳은 아니다. 공간 이용이 먼저고, 음료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준비한 부수적인 것이다. 공간 이용료만 내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공간만 이용할 수 있다. 단, 테이크아웃 음료 주문은 가능하다.

지역과 상생을 위한 공간

웨이브웍스 입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들로 구성된 솔 코너가 있다. 지역에서 만든 비누, 드립백, 수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웨이브웍스의 의지가 담겨있다. 죽도는 서핑의 성지로 일년내내 서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양양의 이런 매력있는 자원을 웨이브웍스와 연계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양양을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웨이브웍스와 연계해 숙박, 음식점,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어우러져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지역과 도시의 순환, 자연과 인간의 생태를 잇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일자리를 따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워케이션이 그 대안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웨이브웍스같은 워케이션 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이들이 찾는다면, 휴가철 반짝 다녀가는 관광지가 아닌 사계절 내내 우리 지역을 찾고 머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양양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글·사진 : 편집부〉

JTBC 돌아온 방구석 1월 촬영현장



편하GO 즐겁GO

양양에선 ‘고고양양’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 새롭게 즐기는
* 스마트한 여행 *



새롭게 단장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8천 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최신 기술로 재탄생한 박물관 #겨울방학에는 체험 프로그램

강과 바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양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1977년 발견된 오산리 유적은 선사시대 신석기문화의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자연조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적이 발견된 자리에 2007년 문을 연 선사유적박물관이 2023년 11월에는 디지털 실감 기술을 도입하는 등 실감 콘텐츠 및 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선사시대 오산리의 풍경과 생활 모습, 선사유물의 문양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와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 등이 실사, CG, 모션그래픽으로 구현돼 양양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체험 방식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8천 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오산리 유적은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으로, 쌍호를 매립해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물의 연대 측정 결과, 약 8천 년 전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전시하기 위해 유적지 인근에 2007년 7월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내부에는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전시실과 외부에는 산책로 및 움막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 연결되는 갈대숲은 산책로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가나 큰 강가, 해안에서 가까운 섬 등 주로 물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양양지역의 신석기문화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출현하였다. 특히, 넓은 하천과 바다, 호수 등으로 인해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었으며 오산리를 비롯해 도화리 구석기 유적 등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신석기인들은 하천과 바닷가 근처에서 어로생활을 하며 지속적으로 식량자원을 획득해 생활이 풍요로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빗살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두꺼달린 항아리 등의 토기를 만들어 쓴 것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물 위에 청동기시대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출토된 유물로는 움집터와 함께 돌칼, 돌화살촉, 돌톱, 돌창, 돌도끼, 돌자귀, 이음낚시,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토제인면상), 덧무늬토기, 누른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흑요석, 곰모양 토우, 다양한 돌그물주 등 총 4천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최신 기술로 재탄생한 박물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은 2023년 11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국비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의 정적인 콘텐츠에서 실감 나고 흥미로운 선사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을 마쳤다. 최근 큰 관심과 호평을 받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재개관을 하자마자 찾아오는 이들이 부쩍 늘었고, 반응도 좋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전면 무료관람으로 운영 중이다.

제1전시실에서는 하천, 바다, 계곡 영역별로 프로젝터 영상으로 전시실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숲속 영역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도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그 당시 자연의 모습과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움집 모형을 철거한 대신 선사시대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고 생활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테이블 모형에 프로젝터를 투사해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다.

제2전시실은 이용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인터랙티브) 영상관으로 재단장했다. 이용객들이 얼굴 사진을 찍으면 영상화면으로 바로 전송되고, 신석기시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해 스캔하면 이용객들의 사진과 그림이 즉석에서 영상화면에 적용된다. 특히, 실감영상관은 전시관 바닥과 벽면을 모두 이용해 환상적인 분위기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구축했다. 선사시대 오산리의 풍경과 생활모습, 선사유물의 문양을 재해석해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 등을 실사, CG, 모션 그래픽으로 구현해 방문하는 이용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시간 : 09:00 ~ 18:00 (17:30까지 입장)

휴무 : 매주 월요일 (공휴일 시 다음날 휴관),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관람요금 : 무료

해설시간 : 화 ~ 목 : 10시 | 11시 | 14시 | 15시 | 16시

금 ~ 일 : 11시 | 14시 | 15시

체험 프로그램 예약 : 033-670-2547, 2442

이메일 : zzambo0812@korea.kr

겨울방학에는 체험 프로그램

선사유적박물관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덧무늬토기와 움집, 곰 모양 토우 등의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보는 체험을 비롯해 열쇠고리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색칠하기 등 출토 유물을 주제로 하는 체험은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덧무늬토기를 발굴하는 체험은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오산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토기를 복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학교 체험학습 제출용으로도 적합해 추천할 만하다. 단, 토기 복원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신상(神像) 중 하나로 사람 얼굴 모양을 표현한 토제인면상과 그릇 표면에 점토를 덧붙여 여러 가지 문양을 나타낸 덧무늬 토기 등의 출토 유물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체험으로 2월 25일까지 관람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12명 내외의 인원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예약제로 운영하며 전화와 이메일로 예약하면 된다.

올겨울, 추운 바깥 활동 대신 최신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선사유적박물관을 다녀와 보면 어떨까. 가상현실 체험, 쌍방향 체험, 미디어아트 등의 실감형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소 시시하게 느껴졌던 신석기인들의 삶이 다시 보일 것이다. 8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시간여행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글·사진 : 편집부>

겨울 별미, 도루묵

다시 겨울, 도루묵이 ‘도로’ 왔다.



도루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든 이름은 그렇게 불리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다. ‘도루묵’은 원래 ‘목어’ 또는 ‘묵어’라고 불리는 생선이었다. 이름 앞에 ‘도루’를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 임금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우연히 수라상에 올라온 목(묵)어의 맛에 반해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맛과 모양을 칭찬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은어(銀魚)’를 찾은 선조는 예전보다 덜한 맛에 실망하여 생선의 이름을 도로 ‘묵’이라고 부르라 명했다고 전해진다.

생선 맛이 달라진 건 임금님의 까다로운 입맛 탓이었을까? 아니면 철이 지나 맛이 덜해진 탓이었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선조는 도루묵에 대해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 요즘 사람들에게 겨울철 도루묵은 없어서 못 먹는 별미로 통하니까. 도루묵은 11월부터 2월까지 제철이라 요즘 딱 먹기 좋은 시기이다. 특히 산란기인 11월에서 12월에 알이 꽉 찬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도루묵알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아서 먹는 재미가 있는데, 도루묵이 섭취한 해조류에 따라 노랑, 갈색, 녹색 등 색깔이 달라지는 말도 있다.



우리 속담 중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헛된 일 또는 헛수고를 이를 때 쓴다. 누군가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아무 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아 ‘말짱 도루묵’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 의미의 속담에 자기 이름을 빼앗긴 도루묵은 무척 억울할 것도 같다. 매년 겨울이면 제철 먹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려 돌아오는 도루묵에게 어울리는 속담이 아니다. 2023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 양양 물치항에서는 도루묵 축제가 열렸다. 살이 제대로 오르고 알이 꽉 찬 도루묵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만찬이 되어 주었다.



제철에 먹는 음식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철 도루묵 역시 건강에 도움을 준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된 혈액 순환을 돋고, 다량의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철분 함유량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좋다. 그 밖에 피로 해소, 다이어트, 두뇌 건강, 부종 개선, 불면증 완화에 탁월하다고 한다. 선조 임금도 도루묵이 이토록 쓸모 많은 생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겨울 어촌을 들썩이게 하는 귀한 생선, 도루묵

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도루묵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물치리 어촌계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도루묵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을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기특한 연중행사였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잠시 쉬어야 했지만, 2022년 재개해 2023년에 13회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3년 12월 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물치항 도루묵 축제는 어촌계원과 활어회센터 입주 상인, 부녀회 등이 함께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루묵 뜯기 체험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겨울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행사 첫날, 축제장으로 들어서자 물치항 회센터를 중심으로 항구를 따라 이어진 몽골 텐트 행렬과 시끌벅적한 분주함이 연말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있었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도루묵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부지런히 손질 중이었다. 깨끗하게 손질한 도루묵은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요리의 재료가 되었다. 주민들의 현란한 칼질을 넋 놓고 구경하다가 올해 도루묵이 많이 잡혔는지 여쭤보니, 바다가 따뜻해진 탓인지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는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축제 시기도 늦추면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도루묵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수는 없으니, 주민들은 축제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열심히 손을 보태고 있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축제를 통해 도루묵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건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값진 자리를 제대로 즐겨야겠다는 마음과 동해안 어촌 주민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축제 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굽고, 조리고, 끓여서 맛보는 도루묵 요리

물치항 도루묵 축제의 메인은 역시 '도루묵 요리'가 아닐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 우선 도루묵 맛부터 보기로 했다. 도루묵은 '겨드랑이에 끼었다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살이 부드러운 생선이다. 그래서 형체를 그대로 유지 하며 조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축제 때 선보인 도루묵 요리는 도루묵구이, 도루묵조림, 도루묵 칼국수, 도루묵 튀김 이었다.

연탄불에 도루묵과 함께 여러 가지 해산물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도루묵 구이장은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싶다. 화로 주위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도루묵을 구워 먹는 모습은 웬지 정감 어려 보였다. 비닐 장막 너머로 보이는 물치항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연탄불에 노릇하게 익은 도루묵은 술잔과 함께 옛 추억까지 부르는 맛이었다.



도루묵 조림과 도루묵 칼국수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제격. 특히 도루묵 칼국수는 강원 지역 특유의 장칼국수에 익힌 도루묵을 고명처럼 얹어주는 음식이었는데 처음엔 생소했지만, 쫄깃한 면발에 부드러운 생선 살의 조합 그리고 얼큰한 국물이 찰떡같이 잘 어울렸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을 돌아보았다. '도루묵'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웃고, 떠들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생겼다. 이제 '말짱 도루묵'이라는 속담의 해석은 달라져야 할 것 같다.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뜻으로. 또 한 해를 열심히 살고, 다시 맛이하는 겨울에 도루묵으로 만찬을 즐길 날을 기다려본다.

〈글·사진 : 편집부〉

오색령(한계령)의 여름과 겨울



여름 (2022년)



겨울 (2022년)



의

정

소

식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출연금 동의안 5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4건, 조례안 13건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2023년도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군정 전반에 대한 부당한 행정 사례 등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사항 및 지역경제,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소통문제, 사업 자연 등의 이유로 시정사항 13건, 개선사항 41건, 권고사항 62건으로 총 116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다.



감사의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최선남부의장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림어업 용 면세유 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봉균의원은 관내 · 외업체 수의계약 내역 중 특정업체가 연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사항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종석의원은 마을 부녀회장이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동원되어 많은 업무를 지원해도 이에 대한 실비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광수의원은 토석채취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석 운반작업으로 도로파손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업체들에게 파손된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살수차 구입을 통한 환경정비 등 사업장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명숙의원은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전국규모 생활 체육대회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강조하고,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당부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1% 감소한 4,251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023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오세만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군민 생활 안정을 최 우선에 두고 군정을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양양군의회 – 양양군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 국제교육원 교육사업 간담회 및 업무협의



2023년 12월 20일, 양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난 10월 30일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주관으로 진행된 '양양군 교육발전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 관련 교육정책제안의 일원으로 '양양군의회 – 양양군 – 속초양양교육지원청 – 국제교육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교육청·지자체·학교의 유기적 협력 방안 모색과 강원 국제교육원 활용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국제교육원)과의 협업과 원어민을 활용한 지역학교 간 동일 외국어 연계교육 통합 운영으로 학생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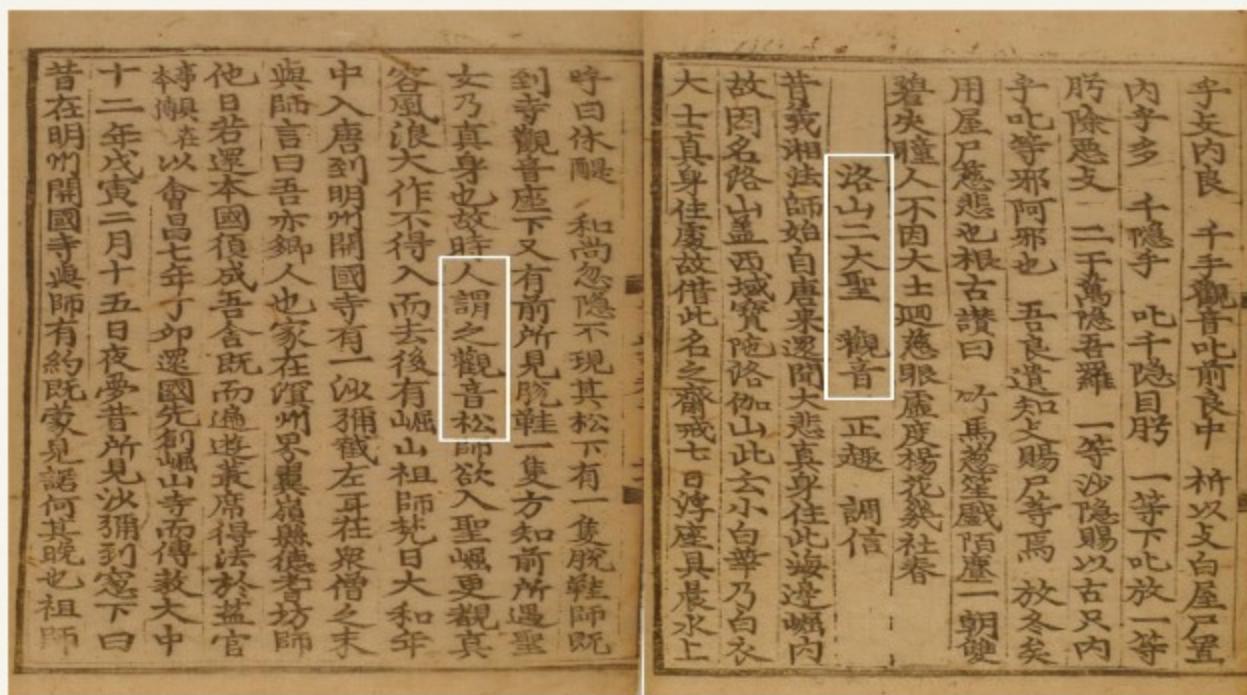
국제교육원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외국어 회화 수업'을 운영,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매주 1회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세만 의장은 “오늘 간담회 자리는 지난 교육발전 공청회의 연장선으로, 국제 교육원을 활용한 지역학생 외국어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자리해 주신 군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국제교육원 관계자분들께 감사”的 인사를 전하며, 능동적인 교육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우리군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외국어 학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낙산사 관음송(觀音松) 이야기

우리 민족이 늘 땔감과 건축재료로 애용하던 소나무의 명칭은 너무도 많다. 그중에서 관음송(觀音松)이라는 이름은 낙산사와 연관이 깊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근기(根基)에 맞추어 32응신(應身)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험담(靈驗談)이라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제4 탑상(塔像) 편에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용(真容)을 보기 위하여 낙산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음송이 탄생하게 된다.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당나라 유학길에 함께 오를 만큼 두터운 우정을 나누던 도반(道伴) 의상(義相)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소문을 들은 원효(元曉)가 의상에게 뒤질세라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기 위하여 낙산사로 향한다. 경주에서 동해의 푸른 바다를 옆에 끼고 의욕에 넘쳐 오랫동안 걸어서 낙산사 근처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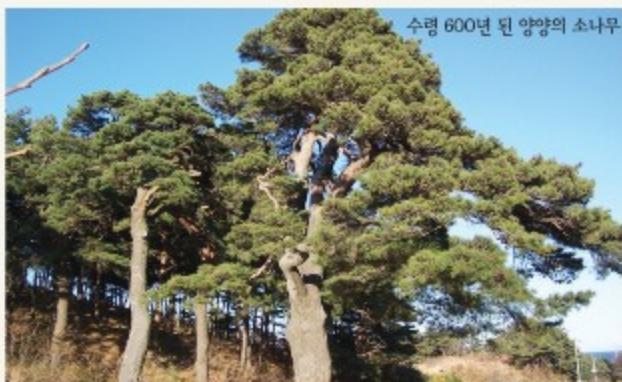
원효가 낙산사 교외(郊外)에 이르렀을 때 논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원효는 희롱삼아 “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여인도 장난삼아 “벼가 흉작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원효는 멋쩍고 섭섭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길을 재촉하여 낙산사 입구의 다리 밑에 이르니 다른 여인이 월수백(月水帛: 생리대)을 빨고 있었다. 목이 마른 원효는 본인이 물을 떠서 먹어도 될 텐데도 굳이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마실 물 좀 주시구려”라고 했다.

이 여인도 원효에게 눈빛 한번 안주고 월수백을 빨던 더러운 물을 떠서 주는 것이 아닌가? 원효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 물을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떠서 마시고는 '고약한 여인네 같으니'라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때마침 들판 가운데에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가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는 "제호(醍醐)』를 마다한 화상이여"하고는 흘연히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원효는 깜짝 놀랐다. 파랑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제호도 못 찾아 먹는 어리석은 화상으로 놀리다니. 원효가 얼른 그 나무 밑에 가보니 신발 한 짝만 놓여 있었다. 이상히 여기며 절에 도착해 보니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앞에도 똑같은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앞에서 만난 성스러운 여인들이 관세음보살의 진신(真身)임을 깨달으며 자괴감(自愧感)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하였다. 이에 원효가 관음굴(觀音窟)에 들어가서 다시 관세음보살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나 연이은 풍랑이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삼국유사 원문은 한자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이해를 돋기 위해 운색(潤色)하였다. 이런 영험담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승려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바 오해 없길 바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파랑새가 앉았던 것으로 여기는 관음송은 고려 임춘(林椿)의 동행기(東行記)로 보아 12세기 후반까지는 낙산사 명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수령(樹齡)이 600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¹⁾ 제호는 우유를 거듭 정제하고 숙성시켜 만든 가장 정갈하고 순수한 상태의 유제품인데 오미 중에서 최상의 맛을 낸다고 하며 석가모니 부처께서도 오랜 고행을 마치고 제호를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한다.



수령 600년 된 양양의 소나무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後有元曉法師繼踵而來欲求瞻禮，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答校勘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師覆弃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醍醐和尚。”忽隱不現。其松下有一隻脫鞋。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故時人謂之觀音松。師欲入聖巒更觀真容，風浪大作不得入而去。

고려시대 임춘(林椿 1149~1182)의 동행기(東行記)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 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 서쪽을 지나는데, 길옆에 외따로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눈이 또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이 미친 곳이 몇 십보나 되었다. 이상하다. 소나무로서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며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는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연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의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긴 사적을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어있고, 물만 흐르고 있음을 볼뿐, 수 백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곧 절구 두 편을 지어 이를 그리워하였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뉴스 YANGYANG NEWS

**2024년도 본예산
4,251억 규모 확정**

2024년도 본예산 4,251억 규모 확정

2023년 12월 18일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4,251억 3,211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는 2023년도 본 예산 4,347억 4,897만원보다 96억 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300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억 ▲하수처리장 확충(강현·인구·하조대 증설) 및 하수관 거 정비(인구·강현) 253억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30억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8억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등이 편성되었다.

**양양 스마트 관광 앱 '고고양양',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수상**

양양 스마트관광 플랫폼 앱 '고고양양'이 2023년 11월, '스마트앱 어워드 2023'에서 공공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1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앱 어워드(Smart App Award)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하여 분야별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앱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고고양양(GOGO YANGYANG)은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양양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존으로 '재탄생'**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존으로 '재탄생'

군은 기존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정적인 콘텐츠를 개선하고 전시 연출에 디지털 실감콘텐츠를 가미하여 이용객들에게 실감나고 흥미로운 선사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 6월부터 사업비 15억 원(국비 5, 군비 10)들여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13일 최종 완료했다. 실감영상관은 선사시대 오산리의 풍경과 생활모습, 선사유물의 문양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와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 등이 실사·CG·모션 그래픽으로 결합된 다면형 실감영상관으로 구축했다.



양양군 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우수상' 수상

양양군 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우수상' 수상

양양군 보건소는 11월 29일 서울 중구의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성과공유대회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CTI)을 활용해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수행과 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주민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양군,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선정, 인센티브 지급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선정, 인센티브 지급

양양군이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30곳을 선정하여 상장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마을은 각 6개 읍면별 최우수 마을 1곳, 우수 마을 2곳, 장려 마을 2곳으로 총 30개소이다. 최우수는 △양양읍 송암리 △서면 갈천리 △손양면 가평리 △현북면 어성전리 △현남면 죽정자리 △강현면 강선리 마을이 선정되었다. 우수마을에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이 지급됐다.

양양군 관내 어린이집 모두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양양군 관내 어린이집 모두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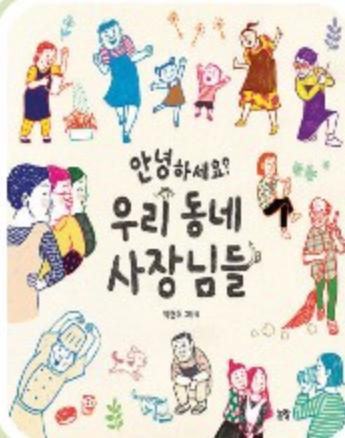
양양군이 최근 어린이집 2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신규선정 및 재선정함으로써 관내 전체 어린이집 7개소가 모두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열린 어린이집'은 2015년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따라 시설 개방과 부모참여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시책이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2개소 중 강현어린이집은 재선정되었고, 신규로 디모데오어린이집이 선정되었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사장님들

저자 : 박현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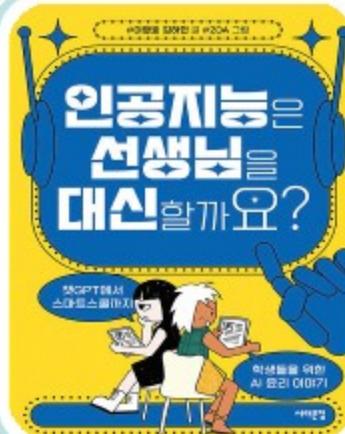
발행처 : 논장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 808.9-논72 ㄱ-70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은 우리 동네, 그중에서도 동네 가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겹고 따뜻한 그림책이다. 정육점, 헤어살롱, 슈퍼, 문구점, 과일 트럭, 사진관, 꽃집, 옷 가게, 서점, 자전거 포, 빵집…….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바로 골목식당 사장님 생일. 자영업자로 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는, 다들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모인다. 떡, 케이크, 전 등 맛있는 음식에 선물 상자와 카드가 놓여 있다. 언제 지쳤나는 듯 하나같이 밝은 표정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고, 서로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며 현실의 우리 이웃들도 돌아보길 바란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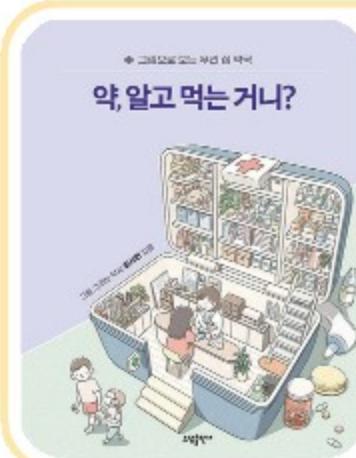


인공지능은 선생님을 대신할까요?

저자 : 이영호, 김하민, 그림 : 2DA

발행처 : 서해문집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331.5412-이64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2010년 전후로 출생한 알파세대,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접하며 성장한 최초의 세대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익숙하다는 게 곧 인공지능이 가져올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테면 교사, 변호사, 공무원 등 인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AI로봇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면인식 CCTV가 주는 편리와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양보해도 좋을까? AI의 결정을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신의 한 수’라며 무작정 믿어도 좋을까? 등의 질문들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제도의 변화, AI와 공존함으로써 벌어지는 윤리적 딜레마를 탐구하며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하고, 이용하여, 책임져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한다.



약, 알고 먹는 거니?

저자 : 최서연

발행처 : 소담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518.04-최54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살면서 약을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살다 보면 약이 필요한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 그러나 약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렵다. 약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용을 잘못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 알고 먹는 거니?’의 저자 최서연은 약학대학을 나와 약사로 일했으며, 미술사학 석사 수료 후 미술업계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저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가 약학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본적인 약 사용법을 그림으로 풀어서 그리기 시작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는 다양한 약 사용법을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다.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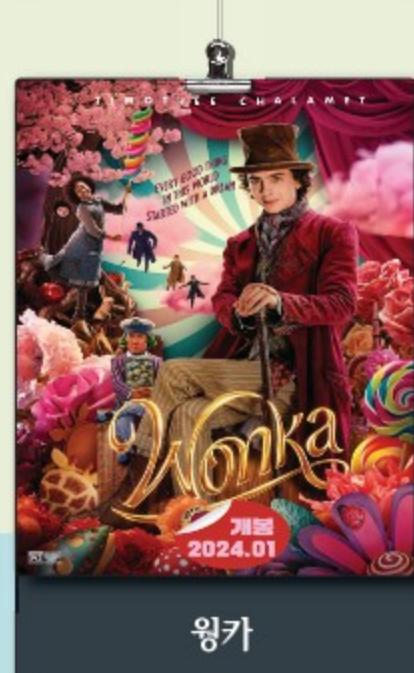
외계+인 2부



인투 더 월드



시민덕희



왕카



나의 올드 오크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 033-673-7050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



재난구호



맞춤지원



안전교육



국제개발협력



홍보대사 안재욱, 소유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적십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가상계좌



금융기관



홈페이지



4종 감사시스템



정보공개제도 준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후원계좌 : 농협은행 203-01-446556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주식회사 윤진 (홈마트)	1명	배송 및 매장진열원	08:30~18:00(주6일)	월300만원
(주)금영	2명	건축 현장소장	08:00~17:00(주6일)	월450만원 이상(협의)
(주)월드와이드 씨비스코리아 (을지인력개발원)	1명	기계 시설작	격일근무	월243만원
	1명	프론트사무원	시간협의	월253만원
(주)소노인티내셔널 양양지점 (솔비치)	1명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플래너)	08:30~17:30(주5일)	연2,400만원 이상(협의)
	5명	흡서방원	08:30~17:30(주5일)	연2,800만원 이상(협의)
	3명	조리사	07:00~16:00(주5일)	일급 88,000원 이상(협의)
주식회사 휘찬산업 (낙산비치호텔)	1명	편의점 및 사우나 매표원	스케줄근무(주4일)	월170만원
	1명	하우스키핑(룸메이드)	09:00~18:00(격주 5일 휴무)	월220만원
	1명	프론트사무원	스케줄근무	월220만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산사랑마을	1명	구내식당 조리원	교대근무	월243만원
인향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1일3시간(주6일)	시급12,700원(교통비 별도)
네오팜	2명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음료생산, 포장)	09:00~18:00(주5일)	월207만원
(주)제이제이네트웍스 (설해원)	5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7:00~17:00(주5일)	연2,960만원

동물원 10

대상동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시스템으로 해당번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四

[내선]
[단축번호, 미디어, 오피스텔을 통해 볼 중주제에서 기록은 2개월간 이상의 재
무 편의 목적으로 기록은 2개월 이상의 개
보기 2020년 09월 09일(수) 09:00 ~ 2020년 09월 29일(화) 09:00

四

등을 등록·변경하거나 등록·변경한 등을 방문하여 대장집 사용(주사기) 또는 의장형 흡관미용 선택하여 강력한 뒤 등을 등록·신청
※ 등록도록내려온다음 글자를 클릭후 경보시스템(www.entrepreneur.or.kr) ◆ 등록과 함께 2~3일 후인

한국문화 민족신고

[환경보호 행위]
부 [10월 하반기] 환경을 일으키려는 경우
부 [20일 이후] 소주와 이륜, 주전원전기보드, 주스, 액체차세정, 풋풀과 일어버렸다가 다시 짓는 경우, 국내에서 기고지 알게 된 경우, 환경에 좋은 경우, 환경, 생활 일으키려거나 웃으면 좋길

141

대한민국 ● 사 · 군 · 구청 관할과 자치법 120글 선택과 문제
문제와 답 ● 국어통일본초등보너스집(전학년도, 주소, 농어축산, 봄날 또는 전부24)소유자변경
등록증, 문장, 해석, 읽기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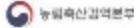
증권 전장▶고객 가입 대비 개설하는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 반려동물 등록 방법

-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대명동물병원, 라온동물병원)에서 접수 및 등록
 - 무선식별장치(RFID) 종류 : 내장형무선식별 장치,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양양군동물등록제외지역 :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 양양읍 동물등록 필수지역
 -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제외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의무등록
 - 동물등록제외지역은 축주가 자율적 등록 가능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 (☎670-2459)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이 1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집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Yangyang County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links for '신청내내' (Application), '비밀번호' (Password), '배출 신청' (Waste Disposal Application), '최종 확인' (Final Check), '공지사항' (Notices), and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Below this, a large blue box titled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신고' (Large Household Waste Disposal Application) contains a small illustration of a house and a truck. It includes a link to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Large Waste Disposal Application) and a '신청내내' (Application) button. At the bottom of this box are buttons for '선택내내 조회' (Check Application Status), '선택내내' (Check Application Status), and '선택내내' (Check Application Status).

A horizontal flowchart illustrating the four steps of the waste disposal application process:

- 선택내내 및 접수 (Check Application Status and Submission)
- 접수증명 (Submission Confirmation)
- 폐기물 배출 (Waste Disposal)
- 수거증명 (Collection Confirmation)

- 접속방법 : 양양군 행정홈페이지 빠른메뉴 서비스 내 '대형폐기물' 클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사이트 접속-'배출 신청' 클릭
대형폐기물 정보 입력-수수료 결제-필증
부착 후 배출장소에 배출
- 안내사항
 - 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 기존 읍면사무소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도 가능
 - 폐기물 배출시간(일몰 후~오전 6시) 및
대형폐기물 수거 요일에 맞춰 기존 배출장소에 배출
※ 주말 및 공휴일 배출 금지
- 문의 : 양양군청 환경과(☎670-2136)



으슬으슬... 추운 겨울, 온기로 따뜻 ~

파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옷 · 물 · 장소



겨울철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등 건강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 + 따뜻한 물 + 따뜻한 장소]



▣ 따뜻한 옷



▣ 방한장구



▣ 따뜻한 물



▣ 따뜻한 장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을겨울도 푸른 하늘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12-2024.03

깨끗한 하늘을 위해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3가지 방법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02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청결하기



03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걷고 줄이고 끄고!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방법

01

가까운 거리는
걷고!



0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03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끄고!



2024년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

LPG용기 사용 “주택” 고무호스 → 금속배관

LPG용기 고무호스는 노후·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사업대상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 “주택”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사업내용

금속배관 교체 + 퓨즈콕 + 안전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 : 23만원 + 자부담 : 약 5만원]

신청기간

2024. 1. 3. ~ 1. 30.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선착순 250가구)

신청서류

신분증(등본) + 우리집 고무호스(가스렌지) 사진

양양군



문의 | 경제에너지과 670-2351, 2707

세액공제, 담례품

기부하고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1 주민복지 증진 사업
- 2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3 청소년 육성·보호
-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 e음 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불가)

▶ 기부자에게 담례품 (기부금 30% 범위 내)

-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6.5% 추가 세액 공제

★ 10만원 기부 시 혜택 :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담례품 포인트 3만원 = 총 13만원

15만원 기부 시 혜택 :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5만원의 16.5%(8,250원) + 담례품 포인트 4만5천원 = 총 153,250원

▶ 고향사랑기부제 양양군 담례품

양양 한우, 불고기 세트 / 해뜨미 오대쌀, 찹쌀 / 생표고 버섯, 건표고 버섯 선물세트 / 국물용 간편요리세트 / 명이, 곰취 장아찌 / 자연송이 고추장, 된장, 꿀 / 전통주 / 한과 / 들기름, 들깨가루 세트 / 아카시아 꿀, 밤 꿀

※ 상기 담례품은 공급업체 사정으로 품절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033-670-2452